

# 문제음주부모를 둔 청소년의 성인아이성향과 심리사회적 특성

## Children's COA & Psychological-social Character by Parent's Problem Drinking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양혜진\*  
Dept. of Social Welfare, Daejeon Univ.  
Additional professor : Yang, Hye-Jin

---

### <Abstract>

This is an investigative study to consider children's COA by parent's problem drinking and their psychological-social character by the CO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lmost half of the children's COA, among those who have problem drinking parents, demonstrated high dangerous lever in the lower factors, such as emotional character, personnel relative character, and co-dependent character. Results of the inspection in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sychological-social characters, according to the danger lever of the children's COA, suggested the children's danger lever is higher, the self-efficiency and adaptable flexibility, which are the psychological-social characters, are lower, and there are no special differences in the social-support.

---

▲주요어(Key Words) : 문제음주(problem drinking), 문제음주부모를 둔 청소년(COA: Children of Alcoholics), 성인아이성향(characteristics of ACOA: Characteristics of Adult-Children of Alcoholics), 심리사회적 특성(psychological-social character)

### I. 서론

우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된다. 그 중 다루기 힘든 문제들은 "중독"이라는 단어로 명명되어 특별 관리대상으로 생각한다. 이는 중독과 관련된 문제들이 그만큼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접

하게 되는 알코올중독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알코올중독은 만성적, 진행적, 치명적인 질병이며 동시에 가족기능에 심한 손상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1970년대 이후 이러한 가족적인 알코올중독, 알코올중독 가족장애, 알코올중독의 가족적 전이 등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역기능과 알코올중독을 야기시키는 가족의 유전,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체계론적 입장에서는 가족체계의 모든 부분이 상호 의존적이고 성원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자 가족은 한 구성원이 알코올중독과 같

---

\* 주 저 자 : 양혜진 (E-mail : jinimoreno@hanmail.net)

은 불건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항상성의 추구하고 유지를 위해 역기능적인 역할에 적응하고 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코올중독자 가족은 이혼, 별거, 유기, 가출, 가난, 만성질병, 실직, 사회적 고립 등 상황적 문제와 잦은 좌절, 낮은 자존감, 의존성, 우울, 미성숙, 충동성의 성격적 문제 등 공동 문제를 가진다.

알코올중독자 자녀(COA: Children of Alcoholics)<sup>1)</sup>의 경우, 부모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다양한 가족스트레스 상황속에서 심각한 정서, 행동, 사회적 문제를 나타내고 이들이 성장한 이후 독특한 임상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한다. 즉, 일부 임상가들(Juliana & Goodman, 1993)은 알코올문제를 가진 가정에서 성장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보인 임상적 특성을 일컫는 성인아이 증후군(adult children syndrome)을 바탕으로 18세 이상 성인 중 성인아이증후군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사회적 관계상의 문제들을 지적한 바 있다. 또 박현선과 이상균(20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성인아이성향(ACOA 성향; Characteristics of Adult Children of Alcohol)에 따라서 내재적, 외현적인 심리사회적 문제의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한 바 있다.

또, 청소년의 음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심정원, 2002; 김정득, 2003; 호산나, 2004; Bsarnes & Farrell, 1992; Lambert, 1996)에서는 부모의 음주행위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적응유연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면서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적응유연성에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문제성음주 부모의 청소년 자녀라 할지라도 높은 수준의 적응유연성을 지니면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교선생님과의 관계가 적응적이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적응유연성 신념체계도 높게 나타낸다고 보고한다. 또, 청소년의 문제음주에 있어서 보호요인으로 투입된 자기효능감과 가족기능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기능이 잘 이루어질수록 문제음주가 감소한다고 한다. 이처럼 문제음주부모를 둔 청소년은 자신의 개인적·환경적 영향요인, 자기효능

감, 사회적지지, 적응유연성 등에 의해 삶의 만족이나 미래가 달라질 가능성을 아주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별화하여, 부모가 문제음주자라고 지각하는 청소년 자녀들(COA)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탐색적 연구를 실시해 보고자 한다. 즉, 일반 청소년들 중 문제음주 부모를 둔 청소년(COA)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선별된 COA 중에서 성인아이성향을 나타내는 COA를 각 하위영역별 위험수준에 따라 구분할 것이다. COA의 구분 이후, 성인아이성향의 각 하위영역별 고위험 집단을 선별하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는 성인아이성향과 심리사회적 특성 간의 경향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인아이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COA의 임상적 특성에 대한 심각성을 객관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상의 연구목적들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가설 1> COA의 성인아이성향 중 정서적 특성의 위험수준에 따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 <연구가설 2> COA의 성인아이성향 중 대인관계 특성의 위험수준에 따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 <연구가설 3> COA의 성인아이성향 중 사고적 특성의 위험수준에 따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 <연구가설 4> COA의 성인아이성향의 각 하위요인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문제음주(problem drinking)

음주문제(alcohol problem)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면, 알코올리즘(alcoholism), 알코올의존(alcohol dependence), 알코올남용(alcohol abuse), 문제음주(problem drinking), 폭음(binge drinking) 및 위험음주(risk drinking)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유채영, 2003). 이러한 용어들은 대부분 의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진단적 또는 사회적 의미로 사용되는 음주 관련 용어들이다. 최근 사회복지 분야의 알코올 관련 연구들에서는 음주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하는 용어사용에 대해 선입견 없는 통합화를 시

1) ACOA와 COA의 개념이 혼용되기도 하지만, 보통 COA(Children of Alcoholics)는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로, ACOA(Adult Children of Alcoholics)는 알코올중독 가정에서 성장한 18세 이상의 성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이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므로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알코올중독자 청소년 자녀로 한정지어 COA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도하고 있다.

한 예로, 김혜련과 최윤정(2003)의 연구에서는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문제음주자(problem drinker)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문제음주자라는 용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표현이 가지는 알코올 중독자(alcoholic)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사람들(non-alcoholic)로 범주화시키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음주자라는 용어는 과도한 음주소비를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전달(Sweeney, 1998)하여 포괄성을 지니며, 마지막으로 알코올 중독자라는 용어는 낙오자 혹은 사회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Rollnick & MacEwan, 1991) 알코올 중독자라는 표현 대신 문제음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용어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김혜련과 최윤정(2003)의 용어사용 권고에 동의하여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문제음주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 2. 문제음주자 가족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 가족 체계론

문제음주자 가족에 대한 가족 체계론적 입장은 가족을 그 구성원에게 상호 영향을 미치는 개방체계로 보고 문제음주자 가족이 나름대로 가족의 항상성을 유지, 달성함으로써 문제음주자에게 적응해 간다고 본다. 문제음주자 가족들에게는 문제음주자의 행동이 가족 단위를 파괴시킨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적응시키고 역기능적인 가족 생활을 그대로 방치한다. 이러한 적응적 변화과정에서 문제음주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문제음주자가 보여주는 특징적인 부정(denial), 낮은 자존감, 죄의식, 우울, 불안, 혼동 등의 제반 증상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의존(Co-dependence), 다시 말하면 문제음주자를 이해하는 하나의 병든 가족으로 공존하게 된다. 문제음주자의 정상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치료도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2) 사회학습이론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학습적 관점에서 설명되어진다.

Barnes 등(1990)은 문제음주자의 자녀는 부모의 음주로부터 술은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고, 사랑, 슬픔, 기쁨, 분노 등 모든 종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배우게 되는, 부모의 음주 행동에 대한 모델링 영향을 보여주

었다. 또, Ahmed 등(1984)은 사회 학습 이론적 관점에서 부모의 음주가 모델링이 되어 자녀의 음주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으며, Hansen 등(1987)과 Brook 등(1988)도 비슷한 연구결과들을 발표하여, 자녀의 음주 기대 형성에 부모의 음주가 중요한 모델임을 제안하였다.

## 3. 성인아이의 개념 및 특성

### 1) 성인아이의 개념

성인아이에 대한 논의는 크게 역기능적인 가정 자녀들에 대한 논의와 알코올중독이라는 구체적인 역기능상황에 놓인 자녀들에 대한 논의로 구분된다. 따라서 역기능이라는 상황은 부모의 부재와 같은 가족구조의 결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성인역할을 부여받은 상황과 부모가 있으나 실제적인 부모로서의 기능을 손상당한 기능적 결손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를 돌보거나 성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

의존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시기에 성인역할 부담을 과도하게 갖게 되면, 한편으로선 조숙하고 의젓한 아이들로 보여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만성적인 분노, 과도한 죄책감과 책임감,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며, 대인관계상에서도 고립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외부의 도움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인기에도 다양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성인아이는 발달단계에 따라 성취해야 할 과업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2) 성인아이의 심리사회적 특성

역기능가족의 성인아이에게서 보여지는 특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내용들을 대인관계적 특성, 사고적 특성, 정서적 특성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인아이들의 대인관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인아이들은 대인관계에서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권위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또한 성장하면서 신뢰와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의존적인 성향을 많이 가진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지는 비난이나 질책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관계상에서 사람을 불신하며,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고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이 어려워 대인관계상의 문제들을 많이 경험한다.

또 성인아이들은 아동기에 지나치게 일찍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책임감은 자신과 가족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으로 연결되기 쉽다. 스스로에게 가혹하며,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끼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변화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성인아이들은 즐기는 것을 어려워하며, 결과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충동적이고, 반항적인 경향이 있다. 거절, 실패, 상실, 연약함에 대해 두려워하며, 성인이 된 이후 평균 이상의 정서적, 심리적 디스트레스, 섭식장애, 성격장애, 높은 우울, 불안, 충동적인 의사결정, 반사회적 성향, 자기평가 절하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박현선·이상균, 2001; 재인용).

#### 4. 문제음주부모를 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양육행동(Hower & Edwards, 1979)이나 친구관계(Hoffman, 1980), 형제관계(Grotevent, 1978)에 따라 심리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부모가 문제음주자로 지각될 만큼 심각한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음주문제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모의 음주문제가 부모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제2, 제3의 복합적인 가족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 문제음주 부모를 둔 자녀들은 그들이 보고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학습되어 지는 독특한 결과들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특성 요인을 부모의 음주행위에 따라 구분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들(심정원, 2002; 호산나, 2004; Bsarnes & Farrell, 1992; Lambert, 1996; 양혜진, 2006; 재인용)을 살펴본 결과, 반복되어 나타나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변수로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적응유연성이 나타남을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도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음주부모를 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적응유연성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음주 부모를 둔 자녀들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연구로는 남영옥과 김재한(2003)의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아주 큰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한다. 양혜진(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음주행위 정도가 심해질수록 자녀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주관적 삶의 질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도 밝혀내,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사회적지지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경험한 청소년은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며,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아통제력을 가진다. 또한 가족관계, 학교, 친구관계 등에서도 육체적, 정신적 위협을 받지 않을수록 여가생활에 만족스러움을 경험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에게는 또래의 지지가 가족 못지않게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스트레스 완화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Sher, 1997; 양혜진, 2006; 재인용).

문제성 음주부모 자녀의 적응유연성 관련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음주 부모를 둔 청소년들은 그들의 적응 및 정상 발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응유연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적응유연성을 가진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불리함을 잘 극복하고, 개인이 경험하는 발달적 도전이나 역경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알코올중독자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도 사회적 자원 활용에 대한 인식이 잘되는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극복이 잘 되고,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난 자녀들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삶에 대한 적응도 뛰어나게 나타난다고 보고된다(Chang, 1994; 양혜진, 2006; 재인용).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4개 구에 위치한 4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자료는 560부이었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여 자료분석에 부적합한 설문지 47부를 제외하고 최종 자료 분석에는 총 513부를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 자기효능감 척도, 사회적 지지척도, 적응유연성 신념체계 척도, 알코올중독자 청소년 자녀의 성향을 나타내는 COA성향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각 도구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

(The Korea Version of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 CAST-K)

Jones(1983)가 개발한 CAST는 부모의 음주 행동에 대한 자녀의 느낌, 태도, 지각,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이 검사는 부모의 음주와 관련된 심리적 고통, 부모 음주와 관련된 가정불화에 대한 지각, 부모의 음주를 조절하려는 시도, 알코올중독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시도, 음주와 관련된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됨, 부모를 알코올중독자로 지각하는 경향, 전문적 상담을 받고 싶은 소망에 대하여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예"에 해당하는 곳에만 체크하여 합산하도록 한다. 점수의 범위는 한 문항을 1점으로 하여 0점에서 30점까지이다. Jones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결과에 대하여, 0~1점 사이에 있는 조사대상자는 Non-COA로 분류되며, 2~5점 사이에 있는 조사대상자는 사회적 음주 부모의 자녀, 6점 이상의 조사대상자는 COA로 분류된다 (<표 1> 참조).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는 Sherer 등(1982)이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홍혜영(1995)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양혜진(2006)의 연구에서 요인분석한 결과 노력의 시도(6문항), 지속성(5문항), 주도성(5문항)의 총 16문항으로 축소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응답자가 동의하는 정도를 5점 Likert척도(1점: 거의 그렇지 않다~5점: 정말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각 하위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효능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3) 사회적 지지척도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 중 '간접적으로 지각된 지지척도'를 김인숙(1994)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박지원은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외국의 여러 척도와 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회적 지지척도를 개발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김인숙(1994)은 박지원의 척도를 사전조사하여 총 16개 문항으로 조절하여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는 3개 하위요인을 지닌 척도로 재구성하였으나, 양혜진(2006)의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요인분석 한 결과 정보적지지(6문항)와 정서적지지(10문항)로 묶을 수 있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1점: 거의 그렇지 않다~5점: 정말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적응유연성 신념체계 척도

적응유연성 신념체계 척도는 Jew(1997)가 개발한 도구 "Resiliency Belief System"을 중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김정득(2003)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 척도는 Mrazek & Mrazek(1987)가 제시하였던 12가지 적응유연성 요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Jew(1991)가 개발하였던 척도를 수정한 것이다(Petricia, 2001).

전체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척도의 응답범주는 1점부터 5점까지로 하는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혜진(2006)의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요인분석 한 결과 의사소통기술(8문항), 성취욕(6문항), 자존감(4문항), 긍정적 관심(6문항), 적극성(3문항), 보호적태도(4문항)의 총 31문항으로 축소하였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로 나타났다.

5) 성인아이성향 척도

이 척도는 성인아이성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박현선 등(2001)이 개발한 성인아이증후군 선별척도(Adult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Filter item 3문항을 포함하여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3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발적이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등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정서적 특성(EM), 자신감이 결여되고 의존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측정하는 대인관계특성(IR), 과도한 책임 및 보호 부담을 지향하며 알코올중독자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등과 같은 공동의존의 경향을 보이는 사고의 특성(TH)으로 구성된다.

<표 1> CAST에 따른 부모의 음주 문제 분류

점수 범위	분 류	내 용
0~1점	비음주 부모 (non-drinker)	술을 거의 마시지 않으며, 자들에게도 술에 관련된 걱정을 전혀 끼쳐 주지 않는 경우
2~5점	사회적 음주 부모 (social drinker)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자녀들에게 별 걱정을 주지 않는 경우
6~12점	과음주 부모 (heavy drinker)	술을 좋아하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의학적으로는 알코올 남용일 때 과음주로 분류
13점 이상	문제음주 부모 (problem drinker)	술을 너무 좋아해 술에 의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정도로서, 의학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으로 분류

각 문항은 3점 척도로 되어있어, 총 점수의 범위는 24점에서 72점까지 분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미성숙한 아이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총점이 55점 이상이고, 각 하위 영역별 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는 고위험군으로서 임상적 주의를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 변별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알코올중독 가정의 아이 선별을 위해서는 반드시 TCAST(Total score of CAST)와 TACOA(Total score of ACOA)가 반드시 위험군에 속할 정도로 높아야 한다. 만약 TCAST가 낮는데 TACOA가 높으면 알코올가정 이외의 역기능 가정의 아이일 가능성이나 부모의 알코올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박현선 등, 2001). 본 연구에서는 CAST척도의 점수를 6점 기준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본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성인아이성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며, 총점 55점 이상이거나 각 하위항목별 16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 IV. 결과분석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들이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연구 대상자 513명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258명(50.3%), 여학생이 255명(49.7%)이었다. 재학중인 학교의 위치별 분류를 살펴보면 동구가 126명(24.6%), 중구가 141명(27.5%), 서구가 134명(26.1%), 유성구가 112명(21.8%)이었다. 학년은 2학년이 236명(46.0%), 3학년이 277명(54.0%)으로 집계되었다. 종교는 무교인 경우가 204명(39.8%), 기독교가 153명(29.8%)이었으며, 생활수준은 보통 이상인 경우가 전체응답자의 463명(90.3%)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수준이 비교적 살만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가정의 주택형태 역시도 '자가'인 경우가 311명(60.6%)으로 가장 많았다.

<표 2> CAST에 따른 부모의 음주행위 구분

부모의 음주행위	빈도	백분율(%)
비음주 부모(non-drinker)	237	53.2
사회적 음주 부모(social drinker)	146	28.5
과음주 부모(heavy drinker)	66	12.9
문제음주 부모(problem drinker)	28	5.5

##### 2) 부모의 음주행위 정도

부모의 음주행위 정도는 자녀들이 지각하여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의 음주행위 정도는 앞의 측정도구에서 설명한 CAST기준에 따라 부모의 음주문제 분류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81.7%가 비음주(53.2%) 내지는 사회적 음주(28.5%)를 하는 것으로 자녀들은 지각하고 있었고, 나머지 18.4%가 과음주(12.9%)이거나 문제음주(5.5%)의 모습을 보인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의 선행연구들의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이다(2).

##### 3) 성인아이성향

문제음주 가정의 성인아이성향 선별을 위해서는 TCAST(Total score of CAST)가 반드시 위험군에 속할 정도로 높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ST척도의 점수를 6점 기준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본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성인아이성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며, 총점 55점 이상과 각 하위항목별 16점 이상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표 2>에 나타나 바와 같이, TCAST 점수가 6점 이상인 문제음주 가정의 자녀는 전체 513명의 연구대상자 중 18.4%를 차지하는 94명이다. 이 94명을 대상으로 성인아이성향을 분류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즉, 자신감이 결여되고 의존적인 대인관계양상을 측정하는 대인관계 특성(IR)이 53명, 과도한 책임 및 보호부담을 지향하며 알코올중독자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등과 같은 공동의존의 경향을 보이는 사고의 특성(IH)은 50명, 우발적이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등의 정서적 불안을 측정하는 정서적 특성(EM)은 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음주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의 청소년들의 절반정도가 성인아이성향인 자신감 없는 대인관계나 공동의존적 사고의 특성 및 불안한 정서적 특성 중 한 가지 정도는 나타내고

2) 연구대상자가 음주문제 부모 자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측정도구는 CAST가 있다. Pilat & Jones(1984, 1985), 그리고 Carroll(198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척도에서 6점 이상을 받은 조사대상자의 부모가 알코올중독 또는 문제성 음주자라고 진단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Kashubeck & Christensen, 1992), 다양한 연구에서 이 척도를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변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Churchill et al. 1990; Berkowitz & Perkins, 1988). 국내의 연구에서도 외국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CAST 점수 6점을 기준으로 하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로 분류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민은정, 2000; 이정숙, 1994; 이재령, 1995; 이경래, 1995; 나규일, 2000; 손영근, 1994; 허지인, 2003).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대부분 CAST 점수 6점 이상의 비율이 22-57%까지 나오고 있어 이러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본 연구 결과 역시 기존의 연구들을 지지하는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있다는 것으로 COA의 성장에 대한 위험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문제음주부모를 둔 청소년(COA)의 성인아이성향과 심리사회적 특성

여기서는 문제음주부모를 둔 청소년(COA)의 성인아이성향인 불안한 정서적 특성, 자신감 없는 대인관계 특성, 공동의존적인 사고적 특성이 자신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1) COA의 성인아이성향 중 정서적 특성의 위험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먼저, 가설 1에서 제시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COA의 성인아이성향 중 정서적 특성의 위험수준을 고위험수준과 저위험수준의 두 수준으로 구분하여(성인아이성향의 각 하위영역별 점수가 16점 미만인 경우를 저위험수준, 16점 이상인 경우를 고위험수준으로 구분; 이하 생략) 독립변수

<표 3> 문제음주부모를 둔 청소년의 성인아이성향

성인아이성향	빈도	백분율(%)	비 고
정서적 특성	45	47.9	
대인관계 특성	53	56.4	각 하위영역별 총점 16점이상
사고적 특성	50	53.2	
성인아이성향 전체	15	16.0	총점 55점이상

로 두고,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적응유연성; 이하 생략)을 종속변수로 두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아래 <표 4>에서 살펴보면 COA의 성인아이성향 중 정서적 특성의 위험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적응유연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적응유연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요인인 보호적 태도에 있어서만 고위험수준에 있는 COA의 경우가 저위험 수준에 있는 COA에 비해 보호적 태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연구가설1에서 제시한 'COA의 성인아이성향 중 정서적 특성의 위험수준에 따라 COA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설정한 가설은 기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소 상반된 결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로 진단받고 알코올전문병원이나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례들을 연구한 결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연구대상자의 범주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여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COA의 성인아이성향 중 대인관계 특성의 위험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다음으로, 가설 2에서 제시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COA의

<표 4> COA의 성인아이성향 중 정서적 특성의 위험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종속변인	저위험군		고위험군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기효능감	노력의 시도	3.17	.62	3.06	.76	.721
	지속성	3.18	.79	3.30	.85	-.686
	주도성	2.93	.61	2.83	.65	.773
	자기효능감 전체	3.09	.52	3.07	.60	.253
사회적지지	정보적지지	3.12	.90	3.08	.81	.192
	정서적지지	3.13	.76	2.94	.73	1.264
	사회적지지 전체	3.13	.78	3.01	.73	.735
적응유연성	의사소통기술	3.75	.63	3.62	.53	1.089
	성취욕	3.80	.95	3.48	.83	1.768
	자존감	3.66	.86	3.59	.79	.407
	긍정적관심	3.09	.80	3.00	.84	.523
	적극성	3.91	.80	3.84	.75	.421
	보호적태도	3.26	.69	2.91	.68	2.454 *
	적응유연성 전체	3.58	.53	3.41	.50	1.621

\*p<.05

<표 5> COA의 성인아이성향 중 대인관계 특성의 위험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종속변인	저위험군		고위험군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기효능감	노력의 시도	3.47	.67	2.85	.58	4.746 ***
	지속성	3.28	.65	3.21	.93	.447
	주도성	2.98	.59	2.82	.65	1.246
	자기효능감 전체	3.24	.47	2.96	.59	2.619 **
사회적지지	정보적지지	3.19	.87	3.04	.85	.835
	정서적지지	3.13	.81	2.98	.70	.952
	사회적지지 전체	3.16	.79	3.01	.72	.947
적응유연성	의사소통기술	3.70	.71	3.67	.48	.239
	성취욕	3.72	.94	3.59	.87	.685
	자존감	3.88	.70	3.42	.86	2.850 **
	긍정적관심	3.23	.74	2.91	.85	1.961
	적극성	3.88	.66	3.88	.85	-.016
	보호적태도	3.27	.64	2.96	.73	2.210 *
	적응유연성 전체	3.61	.53	3.40	.49	1.948

\*p<.05, \*\*p<.01, \*\*\*p<.001

성인아이성향 중 대인관계 특성의 위험수준을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두고, COA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종속변수로 두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표 5>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COA의 대인관계 특성의 위험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중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인 노력의 시도에 있어서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 전체에 있어서도 유의수준 .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각 위험수준에 따른 평균을 비교해보면, 노력의 시도에 있어서 저위험수준의 대인관계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평균 3.47)과 고위험수준의 대인관계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평균 2.85)간 평균에 있어서 고위험수준의 대인관계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의 평균이 현저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효능감 전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저위험군 평균 3.24, 고위험군 평균 2.96). 다시 말하면, COA의 경우 자신감이 결여되고 의존적인 대인관계를 많이 하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에 있어서는 위험수준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적응유연성에 있어서는 자존감과 보호적 태도에 있어서 위험수준에 따라 유의수준 .01,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앞의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저위험군에 속하는 대인관계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자존감 평균 3.88, 보호적 태도 평균 3.27)의 평균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대인관계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자존감 평균 3.42, 보호적 태도 평균 2.96)의 평균에 비해 더 높아 고위험군에 속하

는 자신감이 결여되고 의존적인 대인관계를 하는 집단의 적응유연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연구가설2에서 제시한 'COA의 성인아이성향 중 대인관계 특성의 위험수준에 따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설정한 가설은 일부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COA의 성인아이성향 중 사고적 특성의 위험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가설3에서 제시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COA의 성인아이성향 중 사고적 특성의 위험수준을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두고, COA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종속변수로 두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표 6>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의 공동의존적인 사고적 특성의 위험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적응유연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연구가설3에서 제시한 'COA의 성인아이성향 중 공동의존적인 사고적 특성의 위험수준에 따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설정한 가설은 기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성인아이성향 중 공동의존적인 사고의 특성들은 COA가 성장한 이후 미성숙한 행동이나 사고를 하는 성인기의 대상들이 나타내는 특성이 알려진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처럼 청소년의 성인아이성향을 세분화하여 연구한 결과는 국내에서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 결과와 상이함



<표 6> COA의 성인아이성향 중 사고의 특성의 위험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종속변인		저위험군		고위험군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기효능감	노력의 시도	3.08	.61	3.15	.75	-.550
	지속성	3.21	.72	3.27	.90	-.328
	주도성	2.77	.62	2.99	.62	-1.656
	자기효능감 전체	3.02	.52	3.13	.58	-1.011
사회적지지	정보적지지	3.08	1.00	3.12	.71	-.246
	정서적지지	3.08	.72	3.01	.78	.434
	사회적지지 전체	3.08	.83	3.07	.69	.074
적응유연성	의사소통기술	3.69	.54	3.68	.63	.069
	성취욕	3.62	.88	3.67	.93	-.272
	자존감	3.76	.87	3.51	.77	1.502
	긍정적관심	3.16	.80	2.95	.82	1.268
	적극성	3.83	.78	3.92	.77	-.541
	보호적태도	3.05	.63	3.13	.76	-.510
	적응유연성 전체	3.52	.50	3.47	.54	.415

<표 7> COA의 성인아이성향과 심리사회적 특성과의 관계

	정서적 특성	대인관계 특성	사고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노력의 시도	-.121	.068
	지속성	.023	.055
	주도성	-.073	.239 *
	자기효능감	-.066	.145
	정보적지지	.030	.132
	정서적지지	-.110	.146
	사회적지지	-.038	.148
	의사소통기술	-.015	.085
	성취욕	-.143	.150
	자존감	-.016	-.048
	긍정적관심	-.032	-.027
	적극성	.080	.169
	보호적태도	-.316 **	.136
	적응유연성	-.109	.112

\*p<.05, \*\*p<.01, \*\*\*p<.001

에 대해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후속 연구들을 통해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3. COA의 성인아이성향과 심리사회적 특성과의 관계

지금까지 분석한 차이검증 결과를 통해 COA의 성인아이성향의 위험수준에 따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대인관계 특성에 있어서만 일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차이검증 결과 나타난 COA의 성인아이성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간에 어떤 상관관계 나타내는지 살펴, 그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기술해 보고자 한다.

앞의 <표 7>의 상관관계 결과에 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COA의 성인아이성향을 나타내는 정서적 특성, 대인관계 특성, 사고의 특성이 COA의 심리사회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적응유연성의 하위요인들과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살펴본 결과, 우발적이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등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정서적 특성은 적응유연성을 나타내는 보호적 태도에 있어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부적인 관계에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A의 자신감이 결여되고 의존적인 대인관계양상을 측정하는 대인관계 특성은 자기효능감 전체와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노력의 시도에 있어서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고, 사회적지지에 있어서는 사회적지지 전체와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적응유연성에 있어서는 적응유연성 전체와 적응유연성을 나타내는 자존감, 보호적 태도 각각에 대해 유의수준 .05수준, .01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책임 및 보호부담을 지향하며 알코올중독자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등과 같은 공동의존 경향을 보이는 사고적 특성은 자기효능감에 속하는 주도성에 있어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주도성 이외의 심리사회적 특성들도 대부분 COA의 성인아이성향 중 사고적 특성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상관계수가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유추되는 결과인 COA의 성인아이성향과 상반되는 것으로 매우 독특한 결과로서 추후 좀 더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제음주부모를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아동기 의존적 욕구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어른 같은 아이로 성장함에 따라 정작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같은 어른, 즉 미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성인아이성향이 초기청소년기의 COA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그 분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이러한 성인아이성향이 문제음주부모를 둔 청소년(COA)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연구대상자 513명 중 18.4%(94명)가 자신의 부모가 문제음주자인 것으로 지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치이다.

둘째, COA의 성인아이성향을 위험수준별로 구분해 본 결과, COA의 50%가량이 성인아이성향인 불안한 정서적 특성, 자신감이 결여되고 의존적인 대인관계 특성, 공동의존적인 사고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COA의 성인아이성향 각각에 따라 위험수준을 고위험과 저위험 수준으로 구분하여 COA의 심리사회적 특성(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적응유연성)에 대한 차이에 대한 가설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 단, COA의 성인아이성향 중 대인관계 특성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위험수준에 따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일부 채택된 결과를 얻었다. 또한 COA의 성인아이성향과 심리사회적 특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사고적 특성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표집이 대전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는 표본추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연구설계를 통해 600여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COA의 성인아이성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94명의 COA만이 분석에 사용되어 결과에 일반화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금까지 COA와 non-COA로 구별하여 연구했던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가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에 있어서도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으로 분류될 수 있는 대학생집단의 연구에 그쳤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진입과정에 있는 초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데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초기청소년기의 COA를 대상으로 성인아이성향의 위험수준을 구분하여 COA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탐색하였다는 데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와 논의를 통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발달과업의 미충족에 기인하는 성인아이성향이 문제음주부모를 둔 청소년에게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반청소년 중 약 20%정도가 COA에 속하며, 성인아이성향의 각각의 특성에 COA의 약 50%정도가 고위험수준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문제음주라는 공통분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OA들의 성인아이성향이 각기 달리 나타나는 데에는 또 다른 요인들이 존재함을 유추하도록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COA 중에서 성인아이성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어떤 요인이 COA의 성인아이성향에 영향을 주는지 밝혀낼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둘째, COA의 성인아이성향과 심리사회적 특성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의 본 연구에서는 다소 불분명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에 있어서도 초기청소년기에 속한 점, 또 표본의 수가 너무 적었던 점이 원인이었을 수 있다고 연구의 제한점에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COA의 성인아이성향과 심리사회적 특성이 발달단계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성인아이성향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특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활발한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낸다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6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10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2월 27일

#### 【참 고 문 헌】

- 김석도(2000). 음주기대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 : 기대이론과 기대-가치이론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송자(1998)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공동의존증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 이상균(2001). 알코올중독자 가정 청소년 자녀의 성인 아이성향과 심리사회적 문제. *한국사회복지학*, 46, 118-144.
- 봉은주(2001).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부담감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혜진(2006). 부모의 음주행위와 자녀의 주관적 삶의 질.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채영(2000) 문제음주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 변화전략 수립을 위한 동기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명숙(2004). 한국의 알코올, 약물남용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사회정신보건개입방안: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673-689.
- 이상균(2000). 청소년의 학교비행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사회복지연구*, 15, 110.
- 이필구(2000).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이해와 위기 개입. 복지와 사람들 부설 청소년 약물남용예방센터 제2차 워크샵 자료집, 3-23.
- 장수미(2001).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가족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개입모형 개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 53-77.
- 조현섭(2003). 문제음주 선별검사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이정(2003).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사회적 문제해결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진경(2003). 여성 문제음주자에 대한 사정요인 탐색을 위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은실(1997). 역기능 가정에 대한 그 치료에 대한 연구. 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ckerman, R.J.(1987). Children of Alcoholics; A Guide for parents, Educators and Therapists. *How to Help and Find Help for Children Trapped I Alcoholic Families*. 2nd ed. Simon and Schuster. N.Y.
- Amy Lynn Cater.(2000). *The Role Resilience in the Adjustment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Ph.D. diss. Urbana, Illinois.
- Augenestein, Linda J.(1999). *Resilience and succ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a support/development group program*. Ph.D. diss. Northern Arizona University.
- Carroll, S.(1989).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Dissertation Abstracts Onternational*, 51, 3556-B.
- Chang, J. K.(1994). The study of factors influenced of life satisfaction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대한가정학회지*, 32(2), 109-127.
- Davis, R. B.(1983). *Adolescents from Alcoholics Families: An Investigation in Self-Esteem, Locus of Control, and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Alcohol*. Ph.D. Dissertation. Boston College.
- George De Leon 저 ·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 역(2002). *치료공동체*.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
- Grotevent, H. D.(1978). Sibling constellations and sex typing of interest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49, 540-542.
- Hawley, D. R. & Dehaan, L., 1996.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 Integrating life-span and Family Prospectives. *Family Process*, 35, 283-298.
- Hoffman, M. L.(1980). Mor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In J.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Y.: Wiley.
- Hower, J. T. & Edwards, K. J.(1979).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character and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5(1), 23-32.
- Levine, H. G.(1984). What is an alcohol-related problem? *Journal of Drug Issues*, Winter, 45-60.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Rogosch, F., Chassin, L. & Sher, K. J.(1990). Personality variables as mediators and moderators of family history risk for alcoholism: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2, 78-88.
- Robirson, R. G., Schultz, S. K., Castillo, C. & Kopel, T. (2000). Nortriptyline versus fluoxetine in the treat-

- ment of depression and in short-term recovery after stroke; a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3), 351-359.
- Schmidit, L. A. & Weisner, C. M.(1999). Public health perspectives on access and need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 In J. A. Tucker, D. M. Donovan, & G. A. Marlatt(Eds.), *Changing addictive behavior*(67-96), N.Y.: The Guilford Press.
- Schulenberg, J., K. N. Wadsworth, P. M. O'Malley, J. G. Bachman & L. D. Johnston. (1996). Adolescent risk factors for binge drinking during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Variable-and pattern-centered approaches th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2(4), 659-674.
- Sher K. J.(199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alcoholics. *Alcohol Health and Research World*, 21(3).
- Shin. H. K.(1994). *Burden and Health Status of Family Caregivers Caring for the Elderly Patient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M.A. Thesis.